

#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한다

## 완주군, 올해 66개 사업에 89억여원 투입

완주군이 축산인들의 소득향상과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89억여원을 투자한다.

완주군은 무결점 축산물 생산을 위해 66개 사업에 89억1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능력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

한 한우·낙농진흥사업 추진, 안개분무시스템 지원 등을 통한 양돈, 양계 산업 안전한 축산업 추진, 양봉산업 및 기타가축 육성 등 28개 사업에 27억3200만원이 투입된다.

또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해 사료생산량 확대를 위한 조시료 생산기반 확충의 목적으로 풀사료 생산장려

금,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TMR 배합사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23억64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제12회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 제2회 완주 말문화축제 개최, 학생승마체험교실 운영 등 싸움소와 말(馬)산업 육성을 위한 7개 사업에 3억2700만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18억7200만원이 투입될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 사업에는 구제역·AI 특별방역상황실 운영, 예방약품(16종), 유기동물보호사업 등 12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사업 등 청정 축산을 추구하기 위해 9개 사업에 16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완주군 축산인들과 소통하면서 더욱 더 발전해나가는 완주축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말 현재 완주군에서는 한우우 2만7000두, 젖소 2620두, 돼지 7만5000두, 닭 163만4000두, 메추리 30만두 등이 사육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15억원 집행

##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무주군은 19억 5천만 원을 2017년도 농어촌소득지원기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중 15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월 2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3월 초에는 대상자를 확정(1차 자체심사-사업계획 및 서류 / 2차 대상자 적정여부 심사 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가 돼 있

는 농업인 중 △소득향상 사업을 실천한 저소득 영세농가,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및 전통산업 실천농업인, △고소득 소득원개발 및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업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등이다.

단, 인삼작목은 인삼농협으로부터 경작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농가여야 하며 축사 등의 시설자금은 시설물에 대한 담보 제공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이두명 부흥기획

담당은 "농어촌소득지원 기금은 농업인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이라며 "기금이 경쟁력있는 농업소득원을 발굴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과 농촌관광 등을 활성화시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앞당기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지원 한도는 농업인이 3천만 원, 영농조합법인이 5천만 원 이하로, 연리 1.5%의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 조건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계남 양돈단지 매입·보상 총력

장수군은 해발 450m 이상의 쾌적하고 청정한 장수군 이미지에 걸림돌이었던 장수IC인근에 위치한 계남양돈 단지를 매입, 철거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단지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장수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나, 지난해부터 매입 계획을 수립, 양돈사육 농가 및 관계자들의 협의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농가와 매입(보상) 협의를 절차로 급진 상반기 중으로 매입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철거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계남양돈단지에는 사육농가 6명에 토지 및 물건 소유자 20명 36필지 5만764㎡ 부지에 축사시설 57동 2만3,306㎡에서 1만6,192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매입 보상액은 117억 1,100만원과 철거 복구비 20억원 등



총 137억1,100만원이 소요되는 장수군의 제일 숙원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 규제 강화와 어려운 농촌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정 협조를 위해 평생 업으로 삼았던 양돈업 폐업이란 큰 결

단을 내려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장수군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 장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모르고 있는 내 땅 찾아준다

## 진안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진안군은 지적정리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NS센터)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지적정리정보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

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갖추어 전국 시군구청 지적관리부서(진안군청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063-430-2261)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라북도 토지정보과를 방문 신청하면 즉시 개인별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토지, 자동차 소유 등의 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신청으로 일괄 처리되는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토지소유 현황 결과를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개발부담금 기준면적 상향

##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비도시, 1650㎡서 2500㎡로

무주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촉진을 위해 각종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정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

이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했으며 올 1월 1일 이후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된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8개 토지개발 사업이다.

군 토지관리 김연홍 담당은 "그간에는 영세한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며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 상향조정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접수

##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진안군은 시장개방 등 농산물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단, 발농업직불제 눈이모작은 3월 10일까지) 3개월간 접수 받는다.

군은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진안·장수지사와 읍·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합하여 신청·접수 받는다.

공동접수는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읍·면사무소에 설치·운영하고, 집중접수 기간 동안에는 읍·면 직불제 담당자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담당자가 공동으로 접수·검토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접수 관련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관원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읍·면에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영농 변동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신청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궁금한 내용은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청소년 참여공간 확대

## 고산에 개관·운영 지도사 3명 추가 배치

전국 시·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완주군이 올해부터 청소년 참여공간 및 기반 정책을 확대·추진한다.

군은 올해 고산에 청소년 참여공간(가칭)을 개관, 운영하고, 청소년이 직접 뽑은 청소년 지도사 3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하는 등 참여정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산면 옛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한 시설에 들어설 예정인 청소년 참여공간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자치 동아리활동을 운영·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청소년 참여공간은 내부 청소년공간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해 빈 공간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2월 청소년소통간담회 및 학부모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고산 청소년 참여공간은 면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청소년과

인근 지역 5개 면의 청소년의 꿈과 희망, 소통 등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군은 청소년이 직접 면접에 참여해 선발한 3명의 청소년 지도자를 고산 청소년참여공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들 3명은 지난해 유소연(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장) 학생이 지역전문가가 함께 직접 면접·선발한 청소년 전문가로,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토론 등을 통해 지역과 밀착된 각종 청소년 정책을 발굴·제안·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회정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완주군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고산 청소년 참여공간을 활성화시켜 고산 등 6개면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책 참여를 통해 미래의 꿈을 이루는데 여러 스펙트럼 기회를 쌓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지역 소식통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허영범 소장 취임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내장산 국립공원 백안 사무소장을 역임한 허영범(53·사진) 소장이 2월 1일자로 취임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1975년 1월 1일 국립공원 지정일 42주년 되는 날에 신입 허영범 소장이 부임했다.

허영범 소장은 "백두대간 즐기와 영·호남을 잇는 덕유산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고장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립공원은 고객우선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최용득 장수군수, 떡국 오찬 나눔

최용득 장수군수가 구내식당에서 전 직원과 함께 떡국으로 오찬을 나누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군수는 이날 설 연휴기간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와 AI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해준 직원들을 위로하고 "올해도 소통하고 화합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장수군정을 만드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최군수는 "6차 산업 육성과 맞춤형 복지정책, 균형 있는 지역 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장수를 만드는데 전 공직자들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찬을 함께한 직원들은 "군수님의 인사 말씀처럼 공무원이 우리가 군민이고, 국민이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희망나눔 캠페인 성료

장수군 계남면 '희망나눔 2017 나눔 캠페인'이 모든 면민의 뜨거운 온정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면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캠페인 전개 초반에는 모금 실적이 저조할까봐 우려했으나 행정을 중심으로 한, 마을 주민 및 기관 단체 홍보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면은 한푼 두푼 모은 돼지 저금통을 기부하는 주민을 비롯해 장수골프레저, 주울목(전 재경향우회장), 이규중(금잔디건강원) 등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을 선편 기부함으로써 당초 목표 금액인 346만원 보다 많은 796만원의 성금이 모금, '행악의 고장 계남'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는 평이다.



## 장수경찰서, 유인만 교통과장 승진임용

장수경찰서(서장 전준호)는 서장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및 생활안전교통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인만 생활안전교통과장의 경정 승진임용식을 진행했다.

이날 승진임용식은 경정 임용장 수여와 계급장 부착 및 생활안전교통과 직원들의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유인만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지역치안의 전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